

원윈 리모델링?! Win Win Remodeling?!

20세기 한국 문화예술사에 비추어 건축 장르만큼 모더니즘의 유산이 짙은 그늘을 드리운 문화 영역도 별로 없을 것이다. 주거·업무 활동에 적합한 기능적 효율성을 숭배하며, 장식을 죄악으로 터부시한 국제주의 모더니즘 건축은 지금도 우리의 도시 경관 곳곳에 군림한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19세기말 미국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이 남긴 명제는 지금도 이 땅의 건축 환경을 대변하는 열쇠말이다. 서울 강남·북은 물론 수도권 변두리까지 뒤덮은 격자형 아파트와 치솟는 업무용 빌딩군의 풍경처럼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은 21세기에도 건재하며 증식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런 한국적 상황의 아이러니랄까. 요즘 문화계에서는 20세기 초창기 국내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가 된 옛 병원 건물의 보존과 활용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1930년대 초 조선총독부 관방회 계과에서 설계한 서울 북촌의 소격동 옛 기무사 본관(경성의전 부속 병원)이 그 주인공이다. 기하학적인 창호 배치, 정연한 수평축의 3층짜리 패스에 앞뒤로 툭 튀어나온 반원형 돌출부가 인상적인 이 건물에 정부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건물의 건축사적 가치를 미술관 용도와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동 형태와 배열, 조직적 외벽 등에서 강한 근대적 취향을 보여주는 본관은 건립 당시 '조선의 바우하우스'로 일컬을 만큼 파격적인 외관의 모더니티를 자랑했다. 1930년대 초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으로 신 증축된 본관의 모던한 조형 개념은 근대 병원의 기능적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시 일반인 병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방 뒤에는 서울대 제2부속병원과 수도육군병원, 12·12 쿠데타의 온상인 보안사 건물로 술한 꺾절을 거듭해왔다. 식민지시대 굴절된 모더니즘 디자인을 간직한 이 건물을 미술인들이 미술관 적지로 지목하고 10여 년 전부터 건립 운동을 벌여온 것도 우연 때문만은 아닐 터다. 미술인들은 건축사적 가치가 깃든 본관 보존의 원칙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전면 철거 신축론이 일각에서 등장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졌다.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 9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옛 기무사 본관은 미술관 용도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했다.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재료인 벽돌 정도뿐이라고도 했다. 새 미술관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관을 헐어 첨단 건축물로 신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이 발언은 건축역사학계의 반발을 불렀고, 지난 9월29일 열린 옛 기무사 본관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본관 신축과 미술관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축사학자들과 이에 맞선 미술인들의 의견 대립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본디 병원이던 본관의 재활용 방식은 시가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천장이 높고 개방적인 전시 공간 개념에 기존 공간이 맞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건물에 배어든 엄중한 역사적 흔적들을 상기시켜 줄 공간적 배려 또한 필요하며, 본관의 모더니즘 스타일이 지닌 건축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일부 원형 복원도 요구된다. 결국 건물의 구조미학과 내력 등에 깃든 다기한 역사적 콘텐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사실 논의의 난장을 펼칠 기본 토대는 꽤 축적되어 있다. 지난 9월 미술관 쪽의 의뢰를 받아 나온 한국건축가협회 연구팀의 본관 활용 타당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건물을 온전히 보존하는 방안, 정면 파사드만 남기는 방안, 중앙홀+파사드, 중앙홀+한쪽 윙+파사드 등 여러 실무적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미술계도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플랫폼 인 기무사' 전, '신호탄' 전 등 비엔날레를 방불케 하는 전시 난장을 본관에서 열어 현대 미술 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12월 9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관 조성계획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던 본관 옆 국군 지구 병원의 이전을 확정하고, 새 미술관 설계 아이디어 공모와 지명 설계 경기의 참가 자격을 국내 건축사로만 한정하겠다는 방침 등이 공개됐다. 근대 건축물의 보존 활용을 놓고 문화적 상상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나름 충실하게 확보된 셈이다.

현재 건축 디자인은 모더니즘이 절대 정신으로 군림했던 20세기 전반과는 양상이 다르다. 형태가 의미, 욕망과 결합하는 포스트 모던한 흐름 속에서 인문적 정체성과 창의적 상상력에 바탕한 브랜드 캐릭터가 강조되는 시대다. 옛 기무사 본관의 미술관 재활용을 둘러싼 논의에서 우선 중시되어야 할 것은 건물 곳곳에 걸처럼 서린 역사적 이야기들이다. 초기 모던 건축의 가치를 담은 본관 건물의 패스, 불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요소들이야말로 새 미술관의 아우라와 활용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특징일 것이다. 건축계와 미술계가 역사사지의 입장에서 꾸준한 논의를 거듭하 서로 '원윈할 수 있는' 미술관 인프라의 대안을 창출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



노형석 / No, Hyeon-seok
한겨레신문 문화부 대중문화
팀장(문화재 담당)

약력
· 홍익대학교 대학원(미술사) 수료
· 전 한겨레21 문화팀장